



Cambodia

프놈펜지사

유통채널별로 차별화된 건강음료 판매

캄보디아 건강음료 시장 현황

캄보디아는 GDP에서 꾸준한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health care resource Cambodia에 따르면 캄보디아인들의 건강보조제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약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에는 건강음료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 채널별 건강음료 판매 방식도 제각각

▶ LUCKY SUPERMARKET, 건강식코너 별도 마련

캄보디아에 19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럭키 슈퍼마켓은 대형 슈퍼마켓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대로변에 위치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 매장 내에 건강식코너를 따로 갖춰 건강음료 외 BIO 상품들 또한 판매하고 있다. 진열된 건강음료 중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약 3%로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W사의 honey and red ginseng 100ml인데 건강음료와 일반음료 매대에서 중복 판매돼 명확한 브랜드 확립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 건강음료 매대 진열 모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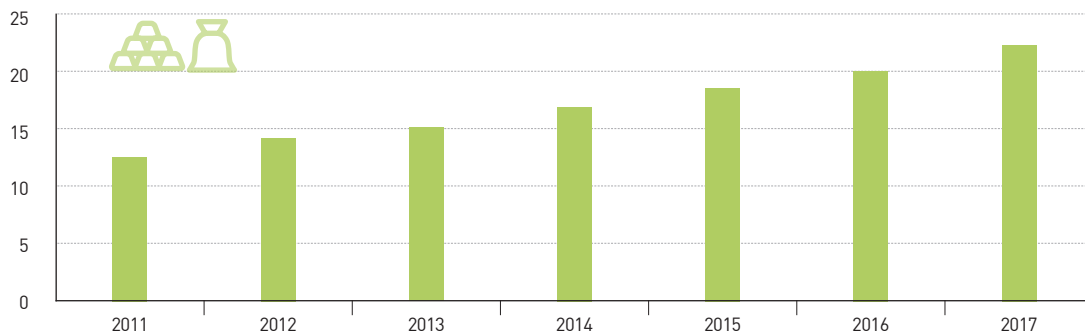


▶ GUARDIAN의 프리미엄 이미지

럭키 슈퍼마켓 관련 기업으로 캄보디아 내 총 7곳이 운영 중인 GUARDIAN은 매장 자체가 청결해 프리미엄 느낌을 갖고 있는 약국이다. 입구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 포스터를 부착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것이 특징이다. 럭키 슈퍼마켓에서 판매하지 않는 콜라겐 관련 제품은 모두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럭키 슈퍼마켓의 건강식코너와 다르게 음료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냉장 시설

| 캄보디아의 GDP 성장 추이 |

(단위: USD)



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캡슐이나 파우더 형태의 건강보조제보다는 액상 형태의 건강보조제를 더 선호한다. 판매되는 수입산 건강보조제의 라벨 상에 현지어 표기가 없어 제품의 성능 및 구성성분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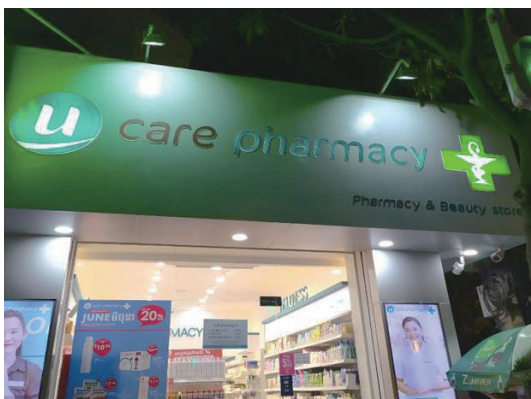
| 건강음료 진열 방식 |



▶ UCARE의 전광판 활용 전략

매장 전경에 전용 전광판을 활용하고 있으며 입구에 홍보물을 부착해놓고 홍보물에 맞게 매장 입구에 상품을 진열해 홍보 효과가 좋다. 각 브랜드 제품 종류를 2~3개씩 갖춰 놓았고 액상 타입, 파우더 타입, 캡슐타입의 제품을 구역별로 나눠서 진열해놓아 제품을 찾기 수월하다. 프로모션은 주로 한 박스 당 10~16병 포함해 10~20% 할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 매장 전용 전광판 활용 |



▶ AEON MALL의 제품특성별 구분화

① 의약품

식품 매장 앞쪽에 따로 의약품 코너를 마련해 건강음료를 진열해 놓고 진열 매대 상단부에 전광판을 설치해 해당 제품에 대해 광고하고 있다. 전광판 광고에 영어와 크메르어를 병행해 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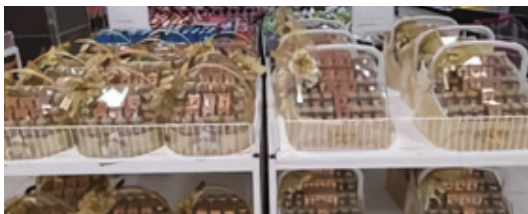
② 음료

과일주스코너에 홍삼 음료는 10병 묶음 박스 포장해 6.5달러(약 7,500원) 가격을 5달러(약 5,800원)로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주로 진행한다. 캄보디아에서 홍삼 음료는 에너지음료로 여겨지며 부모님 선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 에너지드링크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일주스코너에 건강음료가 위치해 있다.

③ 이벤트

이벤트전용 매대를 마련해 캄보디아 연중행사에 맞춰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캄보디아 Father's day인 지난 6월 16일에는 건강음료 패키징을 곳곳에 진열해 놓았다.

| 행사 상품 진열 매대 |



Key Point

건강음료에 대한 구매층 확대

- 빠른 경제 성장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플라센으로, 어린이 성장촉진음료, 다이어트보조제, 유기농음료와 같은 건강음료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 유통 매장인 렉키 슈퍼마켓에서 건강코너를 따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강음료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된 청량음료분야보다 건강음료분야를 공략하는 것이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홍삼음료와 같은 건강음료는 묶음 판매해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구매자가 더 자주 접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전략이다.